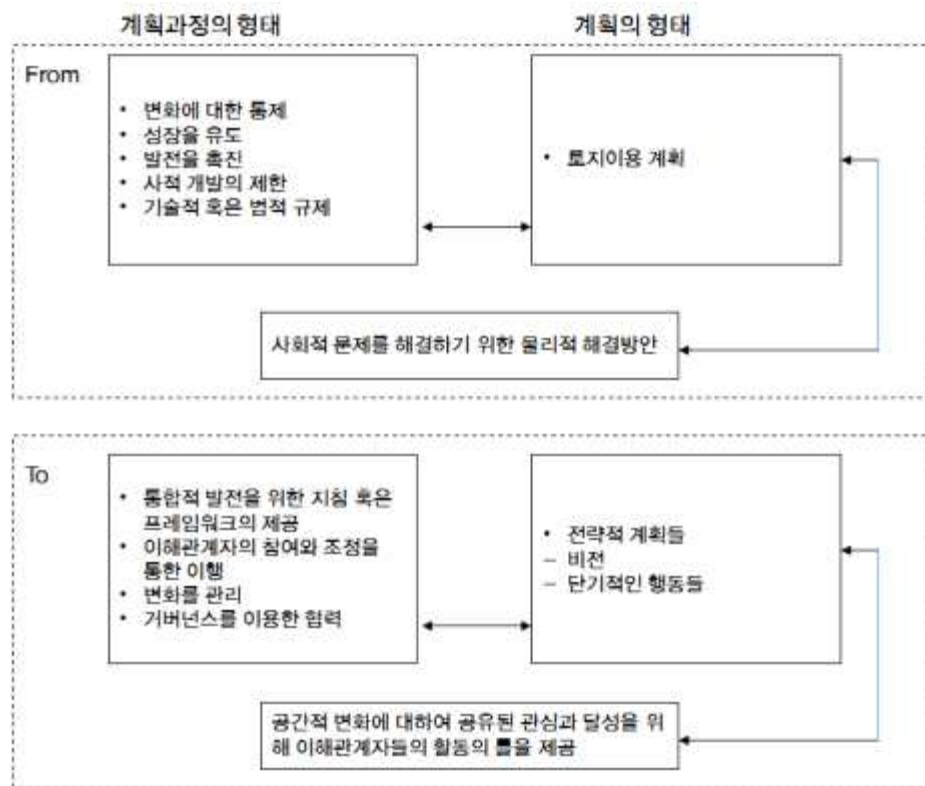




기후변화와 주민참여형 공간계획의 방법



전략공간계획(strategic spatial planning)이란 계획을 통하여 목표에 따른 결과물로서 더 나은 장소를 만들기 위한(better place making) 절차와 도구, 과정에 대한 것이다(Bryson and Roering, 1996; Haughton et al., 2009). 전략 계획은 1950년대에 민간 분야에서 사업의 빠른 변화 및 성장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것에 기원하고 있다(Kaufman and Jacobs, 1987). 1970년대에 오일 위기, 인구통계적 변화, 사회 가치 전반의 변화, 경제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계획과 정책차원에서 전략계획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Albrechts, 2006b). 이러한 전략계획은 공간계획과 접목되어 1960년대와 70년대에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의 체계로 발전하게 된다. 1960년대에는 이러한 전략계획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구조로서 적용되었으며(Albrechts, 2006b), 1970년대 후반에는 토지이용규제의 해체와 기반시설 투자 등에 있어 추세에 기반하여 계획분야에서 지배적으로 수용되었다(Freestone and Hamnett, 1999). 1980년대에 계획의 초점이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이동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도시 및 지역계획에 있어 전략적 공간계획의 개념을 배제하였으나, 20세기가 끝날 무렵에 유럽 연합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장되면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Salet and Faludi, 2000). Healey(2004)는 전략공간계획이 부활한 이유가 특정 지역들의 공공 정책의 조정과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공통 자산 기반을 개발함으로써 도시지역을 경제적으로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공간 형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 내부의 특정 기회에 대한 접근성의 불공평한 배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논의하고 있다.



자료: Albrechts(2004).

<그림 1> 기존의 전통적 공간계획과 전략공간계획의 차이

기존 이론들을 종합하면 전략공간계획은 전략적 핵심 이슈 지역들의 기회·위협·강점·약점을 외부의 추세, 향후의 영향, 이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공간계획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적 요인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Albrechts, 2006a; 2006b; Bryson and Roering, 1988; Hamnett, 1999; Kaufman and Jacobs, 1987; Poister and Streib, 1999; Quinn, 1980). 이를 토대로 전략공간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계획 내 공공 및 민간영역의 주요 행위자들을 파악하고 동원하는 것이다. 둘째, 계획 과정에 있어 폭넓고 다양한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셋째, 견고하고 실행가능한 장기적인 비전 또는 관점을 설정하고, 정치·경제·성·문화 측면에서의 권력 구조의 불확실성과 대립하는 가치들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략공간계획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에 기초하여 공간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Ogilvy, 2002). 이는 전략공간계획의 목표들이 기존의 일반적인 토지이용규제, 자연자원의 보호와 같은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되, 좀 더 실행을 지향하고 개방적인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계획의 이행과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향을 만들고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lbrechts(2006a)는 이러한 전략공간계획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선택적(selective), 참여와 관계(relational annex inclusive), 통합성(integrative), 비전(visioning), 행동 지향적(action oriented) 등의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략공간계획은 선택적이어야 한다. 종합적 계획(comprehensive plan)이 모든 문제에 접근하고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반면에, 전략공간계획은 선택적이며 정말 문제가 되는 이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의 한계와 제도적 역량의 한계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략은 어떤 결정과 행동들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성과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장애물, 목표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선택적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참여와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공간계획이 공간과 장소의 물리적 개념에 의존하고 대상과 형태에 집중하는 반면, 전략공간계획은 공간 내의 관계와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 공간에 대한 인지와 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와 특정 맥락 안에 내재된 관계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모든 관계들의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이 만나는 영역과 공간을 제공하는 교차점을 가지고 있다(Healey, 1997). 이러한 교차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행동과 이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미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는 어떠한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어떤 이해관계자와 시민은 계획의 제안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권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이해관계자와 시민은 정책 결정과정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전략공간계획은 개인과 집단의 잠재성을 파악하고 공간계획의 수립과 실행의 과정에서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집단과 시민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계획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에 의사결정과정과 계획의 이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통합적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공간계획이 대상과 기능에 집중한 반면, 전략공간계획은 과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로 다른 층위의 부서, 정부 간의 수평/수직적 통합은 계획 내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었으며 이로 인해서 단절된 접근, 비용 및 정책의 중복,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전략공간계획에서 통합성은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을 모두 포함한다. 수평적 통합은 부서 간 협력과 조화, 부서와 각 기관들의 경계와 영역의 확장 및 조정을 의미한다. 수직적 통합은 해당 공간을 둘러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위계적인 상호작용을 전략적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통합은 상호협력과 관계의 증진 그리고 계획의 이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비전의 설정은 장소가 미래에 될 수 있거나 되어야 하는 모습을 언어나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공간계획은 가능한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와 어떻게 그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비전의 생성은 특정한 공간의 약속된 미래의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는 의식적이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행위임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범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규범 없이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치명적인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Ogilvy, 2002). 따라서 비전은 이해관계와 특정한 행위자들 간의 결함 내의 특정한 이슈들과 관련된 특정한 맥락들(경제, 사회, 문화, 정치, 권력)과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그리고 특정한 규모 안에서 설정될 수 있다. 특정한 공간과 시간, 규모 내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출된 비전은 공동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규범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전이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이상적인 상상이 되거나 혹은 진부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전은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는 사회적 관계인 공간에 내재된 권력과 불평등, 다양성의 조건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행동을 지향해야 한다. 전통적인 공간 계획은 문제와 장애물들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계획을 생산하거나 단순히 공간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무언가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전략 공간계획은 단순히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한 불확실한 대응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략공간계획은 행동과 계획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정책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며, 왜 이것을 하는가를 정의하는 목적·정책·행동·계획·프로그램·액션(단기/중기/장기)·결정·자원 배분의 패턴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계획의 이행과 행동을 위해서는 정치적 권한과 실행의 행위자들(공무원들, 시민들, 커뮤니티 조직들, 민간 기업들, 개발자들, 공공 부서들) 사이의 효과적인 연계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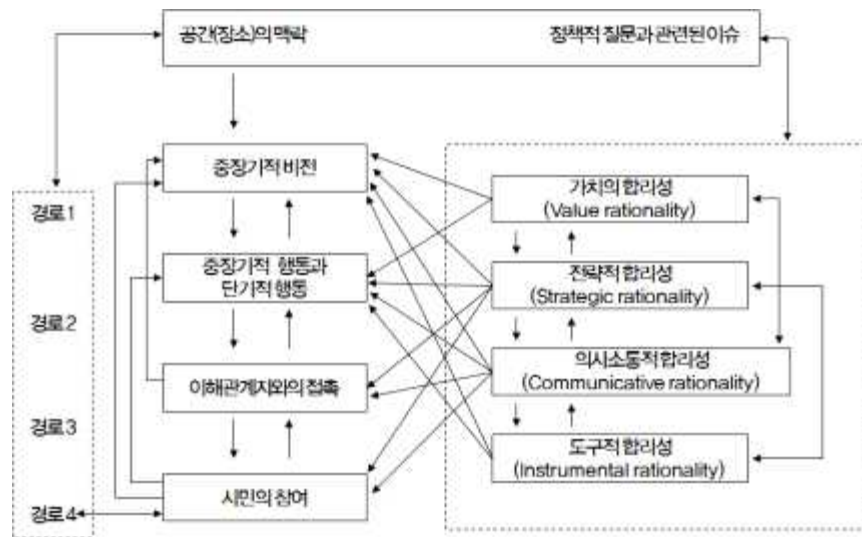


자료 : Albrechts(2004).

<그림 2> 전략공간계획의 거시적 구조와 네 가지 경로

그렇다면 전략공간계획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Albrechts(2004)는 전략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네 가지 경로의 접근법을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 경로 중 첫 번째 경로는 비전의 설정, 두 번째 경로는 중장기 및 단기적인 행동계획 수립, 세 번째 경로는 핵심적인 행위자들의 참여, 네 번째는 대중의 참여로 구성된다. 네 가지 경로의 접근법은 4개 유형의 합리성의 상호연계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가치의 합리성(대안적 미래의 설계), 의사소통적 합리성(공공 및 민간 영역의 많은 행위자들을 계획 과정에 대한 참여), 도구적 합리성(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탐색), 전략적 합리성(권력 관계를 다룰 명확하고 명쾌한 전략 수립) 등이다(Albrechts, 2004).





자료 : Albrechts(2004).

<그림 4> 전략공간계획에서 합리성의 개념을 통합하기 위한 4가지의 경로 접근법

첫 번째 경로는 장기적인 비전을 형성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비전은 가치의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수립된다. 비전의 형성은 미래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가치와 의미들의 중심에 사회적 관계와 권력적 행동이 내재되어 있다. 비전을 형성하는데 있어 합리성은 가치의 합리성과 전략적 합리성 하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시민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비전에 보완되어야 한다. 비현실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도구적인 합리성에, 그리고 극단적 상대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치의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경로는 중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행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공유되고 합의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행동을 통하여 문제를 상호 해결하는 노력의 방법들이다. 이러한 행동은 첫 번째 경로에서 형성된 비전과 일치하며 또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상호합의적인 과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행된다. 특히 단기적인 행동들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와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경로는 관련된 행위자들을 확인하고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과 역할을 부여하며 절차적인 합법성을 얻는 과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행위자, 관련 정부기관의 부서들에 걸쳐 제안된 행동들을 직접 실행하기 위한 도구를 배분한다. 실무의 영역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담당할 것인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투입하여 할 것인가, 상호 통합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네 번째 경로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와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상호이해와 학습을 수행하며 그들의 관점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행위를 통하여 보편타당한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다. 여기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사회적이고 지적인 자본(social and intellectual capital)이 지역에 형성될 수 있다.

2. 시나리오 공간계획의 개념과 이론

시나리오 기법은 기업에서 먼저 이용된 미래예측과 대응방법이다. RAND라는 회사에서 시나리오 기법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Royal Dutch Shell에 적용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Wack, 1985). 초기의 시나리오 기법은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자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제한된 자원과 주어진 조건 내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Chakraborty et al., 2011). 그 이후 시나리오 기법은 군사, 갈등관리 분야 등에 응용되었으며(Andrews, 1992; Bradfield et al., 2005), 공간계획에서의 응용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1962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 법(Federal-Aid Highway Act of 1962)에서 토지이용과 교통을 결합한 계획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70년 국가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70)에서 교통과 자원계획(resource planning)의 대안적 방법으로 환경의 영향 상태에 따라 가능한 행동과 결과의 예측들을 고려하는 형태로 나타났다(Chakraborty et al., 2011). 도시 단위에서는 포틀랜드시가 1990년대 초반에 시나리오 기법을 계획과정에 응용하여 시나리오 공간계획을 도출하였으며 성장의 위치와 정도, 밀도 등을 다양화하여 교통 및 입지를 연동하였다(정희운, 김선웅, 2011).

시나리오 계획의 목적은 전략을 개발하고, 참여를 통하여 합의와 이해를 도출하며,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다(Zegras and Rayle, 2012). 시나리오 계획 자체는 도시, 지역 등의 공간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군사, 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계획이 지닌 특성을 공간에 적용한 것을 시나리오 공간계획이라고 하였다. 공간계획에 대한 시나리오 계획의 적용은 공간 상에서 나타나는 정책을 통합하고 공유된 합의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며 참여과정을 통하여 합의와 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과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계획과 시나리오 계획의 차이는 <표 1>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전통적 계획은 하나의 특정한 주제 혹은 부문에 대해 해당 부문 외에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가정 내에 통계적이고 안정된 구조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단순하고 확정적인 미래에 대해 대안적인 안을 도출한다. 반면 시나리오 계획은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다른 부문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한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공간에 적용된 전통적 공간계획과 시나리오 공간계획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1> 전통적 계획과 시나리오 계획의 차이

구분	전통적 계획	시나리오 계획
관점	부분적 (해당 부분 외의 모든 것은 동일하다고 가정)	전체적 (동일한 것은 없다고 가정)
변수	양적, 객관적, 드러난 것	질적, 반드시 양적이지는 않음, 주관적, 드러난 것일수도 있고 숨겨진 것일 수도 있음
변수들의 관계	통계적, 안정된 구조	동태적, 새로 떠오르는 구조
설명의 방향	과거가 현재를 설명	미래는 현재의 존재이유
미래 묘사	단순하고 확정적	복합적이고 불확정적

방법	결정론적이고 양적인 모델 (경제이론적, 수학적)	의도와 관련된 분석, 질적인 확률모델 (교차영향 분석 및 시스템 분석)
미래에 대한 태도	수동적 또는 소극적	능동적이고 창조적

자료: Lindgren and Bandhold(2009)(이주명 역(2012)).

시나리오 공간계획은 기존 공간계획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 과거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비판은 계획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실패, 거버넌스의 실패, 비즈니스의 실패의 측면에서 논의된다(Ratcliffe and Kvaczyk, 2011). 우선 계획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실패는 비전을 형성하는데 있어 양질의 비전 형성이 없으며, 공간계획의 주변환경이 지니고 있는 복잡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변화의 속도를 계획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홍보과정, 공청회 등의 명목적 참여의 수단으로 대체되어버린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력의 부재, 규제와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공간에 더해진 시간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계획과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타당성과 효율성을 모든 계획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점,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 자체의 부족한 역량과 민주성에 대한 인지 등이 추가될 수 있다(Ratcliffe and Kvaczyk, 2011).

다음으로 거버넌스의 실패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현상이 여전히 남아 있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과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점, 예산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단기적인 수요에 대응할 뿐 중장기적인 필요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리더십과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옹호자가 결핍되어져 있다는 점 등과 관련된다(Ratcliffe and Kvaczyk, 2011). 이러한 거버넌스의 실패는 많은 부분 주체와 행위자 간 신뢰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정부 부처 및 중앙-지방 정부 간 신뢰의 부족, 이를 통합하는데 있어 주도권 경쟁과 형식적 참여, 사회 전반의 신뢰가 결핍된 현상 등이 더 불어 나타나며 이는 형식적 거버넌스의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은 비즈니스의 실패이다. 여기서 비즈니스의 실패란 계획이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기업의 거대한 확장과 횡포를 다루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 계획은 시장의 실패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 남용과 포식자와 같은 행동에 계획가와 정책가들이 매몰되어버리기도 하며, 낮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전통, 환경,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무시, 커뮤니티와 시민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며 지역에 지식을 이전하지 못하고 낮은 일자리만을 공급하는 등의 문제 등으로 연결된다(Ratcliffe and Kvaczyk, 2011).

시나리오 공간계획에서 논의되는 시나리오는 기존의 공간계획에서 이용하던 예측과 비전의 개념에서 차별화된다. 시나리오는 발생 가능한 미래를 대상으로 하며, 한 특정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로 변화되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명가능하며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나리오의 구성을 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상호의 협력과 합의 그리고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표 2>는 시나리오와 예측, 비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적용에 있어 시나리오는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2-2> 시나리오, 예측, 비전의 비교

시나리오	예측	비전
실현가능한 미래	실현가능성이 높은 미래	원하는 미래
불확실성에 기반	확실한 관계들에 기반	가치에 기반
위험을 드러냄	위험을 숨김	위험을 숨김
질적이거나 양적	양적	대개는 질적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때 필요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필요	자극하고 고무하는데 필요
실제로 잘 이용되지 않음	일상적으로 이용됨	비교적 자주 이용됨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장점	단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낮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장점	자발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

자료: Lindgren and Bandhold(2009)(이주명 역(2012)).

하지만 시나리오, 예측, 비전의 개념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나리오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간계획과정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사이의 개념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계획에서 일상적인 계획대안(planning alternative)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들은 시나리오 공간계획을 통하여 도출한 대안들과 다른 형태를 지닌다(표3). 기존의 계획대안은 이미 설정된 정책목표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나 도면 형태의 정책과 행동을 담은 결과이다. 시나리오 공간계획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대안은 이미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을 시나리오 과정을 통해서 탐색하고 시나리오 구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대안을 구성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계획대안은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나리오 구상을 통하여 공간계획을 한다는 것은 해당 공간에 대해 가장 확률이 높은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미래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목표에 따른 계획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다. 시나리오 공간계획은 가능한 미래의 체계와 불확실성을 염두해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의사소통과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합의와 상호 이해를 실행해나가는 과정이다(Smith, 2007).

<표 3> 기존의 계획 대안과 시나리오 공간계획 대안의 비교

구분	기존의 계획 대안 (Planning Alternative)	시나리오 공간계획의 대안 (Scenario 1, 2, 3 ... N)
목적	- 특정한 미래비전이나 정책방향을 미리 설정한 후 이를 공간적으로 구체화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대안 마련이 목적	- 미래 진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개발된 시나리오 대안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선택함으로써 주민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 주요 목적
계획 대상 및 적용 시점	- 바람직한 미래비전이나 특정한 정책방향을 미리 설정한 상태에서 계획대안 마련(先 정책방향 설정 → 後 계획 대안) - 단기적 해결방안이 요구되는 현안 쟁점을 대상으로 개발/정비의 대안 마련에 주로 사용됨	- 가능한 미래를 열어둔 채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외부 여건 분석,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몇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미래진로 및 정책방향 논의(先 시나리오 작성 → 後 정책방향 설정) - 장기적 미래 진로나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선택에서 주로 활용됨 - 미래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지만 전략적 선택이 요구될 경우 효율적으로 활용
수	전문가	전문가는 구조적으로 다른 몇 개의 시나리오와 시나

립 주 체	역할	방향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공간전략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실문자와 조율하는 것이 주요 역할	리오별 장단점을 포함하는 논의자료의 마련과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주요 역할
	시민 역할	- 전문가가 마련한 계획대안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민참여는 제한적	- 전문가가 마련한 시나리오 대안과 각각의 장단점이 제시됨으로써 상호비교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시민 참여의 활발한 논의가 가능
결과물		- 특정한 정책방향 하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 대안 제시 - 공식적인 계획문서나 도면의 형태	-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진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결과 - 선택된 시나리오 자체가 공식적 계획문서나 법정 도면이 아니며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
효율적 적용이 예상되는 상황		- 향후 미래가 비교적 안정적 -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이슈 - 이해관계자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 미래의 불확실성 요소가 많은 경우 - 복잡한 정책 이슈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 * 특히, 현 시점에서 미래 진로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이 불가피할 경우

자료: 정희윤, 김선웅(2011).

●참고 문헌

- Albrechts, L. 2004. "Strategic (spatial) planning reexamined". *Environment and Planning B*, 31: 743-758.
- _____. 2006a. "Shifts in strategic spatial planning? some evidence from Europe and Australia".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6): 1149-1170.
- _____. 2006b. "Bridge the gap: from spatial planning to strategic projects". *European Planning Studies*, 14(10): 1487-1500.
- Andrews, C. J. 1992. "Sorting out a consensus: analysis in support of multiparty decis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19(2): 189-204.
- Bradfield, R. et al. 2005.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scenario techniques in long range business planning". *Futures*, 37(8): 795-812.
- Bryson, J. M. and W. D. Roering. 1988. "Initiation of strategic planning by govern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6): 995-1004.
- _____. 1996. "Strategic planning options for the public sector".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2* Perry, J. L. ed. Jossey-Bass.
- Chakraborty, A. et al. 2011. "Robust plans and contingent plans: scenario planning for an uncertain world".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7(3): 251-266.
- Freestone, R. and S. Hammett. 1999. "Introduction". *The Australian Metropolis: a Planning History*. Freestone, R. and S. Hammett. eds. Taylor & Francis.
- Granados Cabezas, V. 1995. "Another mythology for local development? selling places with packaging techniques: a view from the Spanish experience on city strategic planning". *European Planning Studies*, 3(2): 173-187.

- Hamnett, S. 1999. "The late 1990s: competitive versus sustainable cities". *The Australian Metropolis: a Planning History*. Freestone, R. and S. Hamnett. eds. Taylor & Francis.
- Haughton, G. et al. 2009. *The New Spatial Planning: Territorial Management with Soft spaces and Fuzzy Boundaries*. Routledge.
- Healey, P. 1997. *Making Strategic Spatial Plans*. Routledge.
- _____. 2004. "The treatment of space and place in the new strategic spatial planning i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8(1): 45-67.
- Kaufman, J. L. and H. M. Jacobs. 1987. "A public planning perspective on strategic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3(1): 23-33.
- Kunzmann, K. 2000. "Strategic spatial development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Revival of Strategic Spatial Planning*, pp.259-265. Salet, W. and A. Faludi. eds. Royal Netherlands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 Ogilvy, J. 2002. *Creating Better Fu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 Poister, T H., and G. D. Streib. 1999. "Strategic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concepts, models, and processes".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22: 308-325.
- Quinn, J. B. 1980. *Strategies for Change: Logical Incrementalism*. Homewood, IL: RD Irwin.
- Ratcliffe, J. and E. Krawczyk. 2011. "Imagineering city futures: The use of prospective through scenarios in urban planning". *Futures* 43(7): 642-653.
- Salet, W. G. M. and A. Faludi. 2000. *The Revival of Strategic Spatial Planning*. Royal Netherlands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 Smith, E. 2007. "Using a scenario approach: from business to regional futures." *Engaging the Future: Forecasts, Scenarios, Plans, and Projects*, pp.79-101. Hopkins, L. D. and M. Zapata. ed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 Wack, P. 1985. *Scenarios: The Gentle Art of Re-perceiving*. Harvard Business School.
- Zegras, C. and L. Rayle. 2012. "Testing the rhetoric: an approach to assess scenario planning's role as a catalyst for urban policy integration". *Futures*, 44(4): 303-318.
- Lindgren, M. and H. Bandhold. 2009. 「시나리오 플래닝」. 이주명 역(2012). 필맥.
- 정희운, 김선웅. 2011.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기법 개발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 시나리오형 계획기법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